

#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오염물질 배출권 유상사용제도 시행	난징
문화·관광	2	장애인에 문화예술행사 참여 지원 시범사업 추진	시드니
사회·복지	5	‘취업난 해결’ 청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	버밍엄
행재정·교육	7	대학·기업 등과 연계 자연환경 분야 인재 양성	도쿄
환경·안전	9	도시정부 차원 ‘시민 정신건강 증진 로드맵’ 발표	뉴욕
	11	파리-수도권 기후·대기·에너지 정보 담은 지도 공개	파리



## 오염물질 배출권 유상사용제도 시행

새해부터 이산화황 등 4가지 배출권 수치 거래 가능

중국 난징市 / 환경·안전

- 중국 난징市는 2016년 1월부터 오염물질 배출권 유상사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예비조치로 2015년 12월부터 오염물질 배출권 수치에 대한 공개가격경쟁 경매를 개시한다고 발표
- 도입배경
  -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베이징·상하이 등에서 시범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
  - 또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를 확대·실시하겠다고 밝힘.
- 오염물질 배출권의 징수내역
  - 난징시는 이산화황(SO<sub>2</sub>), 질소산화물(NO<sub>x</sub>), 화학적 산소요구량(COD), 암모니아질소(NH<sub>3</sub>-N)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공공자원 거래목록에 포함시키고 오염물질 배출권 수치를 공개 경매하기로 결정
  - 오염물질별 징수금액
    -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은 1톤당 2,240위안(40만 원)
    -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업에 따라 1톤당 2,600위안(46만 원)과 4,500위안(81만 원)으로 차등 징수
    - 암모니아질소는 기업에 따라 1톤당 6,000위안(107만 원)과 11,000위안(197만 원)으로 차등 징수
  - 난징시는 2016년 40%를 시작으로 2017년 70%, 2018년 100%로 오염물질 배출권 사용 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

[http://www.nanjing.gov.cn/njgovxxzx/bmkx/201512/t20151217\\_3709702.html](http://www.nanjing.gov.cn/njgovxxzx/bmkx/201512/t20151217_3709702.html)

<http://jsnews.jschina.com.cn/system/2015/11/30/027174242.shtml>

<http://news.hexun.com/2015-12-01/180906800.html>

<http://gw.yjbys.com/tonggao/36863.htm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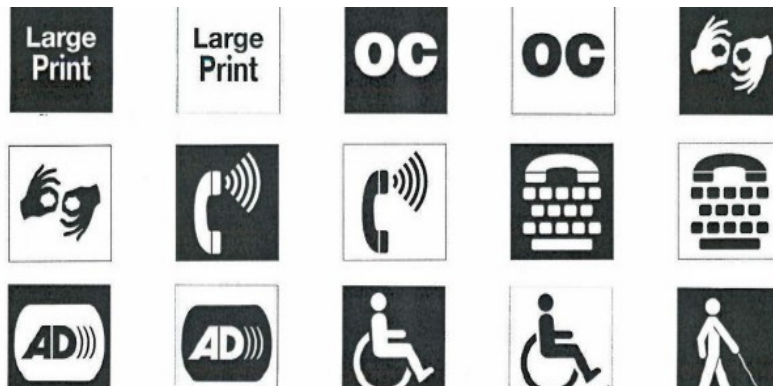
## 문화·관광

### 장애인에 문화예술행사 참여 지원 시범사업 추진

호주 시드니시 / 문화·관광

- 호주 시드니시는 장애인의 문화·예술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‘접근과 통합 (Access and Inclusion Print Digital Campaign)’ 사업을 시행
  -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‘문화예술 중장기 전략’의 실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예술기관인 ‘Accessible Arts’에서 주관
- 사업의 목적
  - 장애인에게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·예술 관련 정보를 제공
  - 장애인에게 문화 활동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최적의 실천방안 강구
  - 장애인의 문화행사 접근을 제약하는 장애요소의 제거
- 관련 정책
  - 시드니시는 2014년 수립한 ‘통합을 위한 실행계획(Inclusion (Disability) Action Plan 2014-2017)’에서 장애인이 예술가나 청중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합적 도시구축의 주요 실행계획으로 명시
  - 또한 장기 문화예술정책인 ‘창의적 도시, 문화정책 및 실행계획(Creative City, Cultural Policy and Action Plan 2014-2024)’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과 관련된 시의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이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제시
  - 세부계획의 주요내용
    - 문화행사 시 장애인 친화적 대중교통 수단 제공
    - 장애인을 위한 요금할인제도 시행
    - 행사장에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

- ‘Accessible Arts’의 주요 서비스
  - 예술가 개발(Artists Development)
    -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인이나 기관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
    - 장애인이 재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
  - 청중 개발(Audience Development)
    -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행사장 및 서비스가 장애인 청중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문
  - 교육(Training)
    - 문화예술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이해와 장애인 청중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‘장애이해 교육(Disability Awareness Training)’ 실시
  - 정보(Information)
    -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개발 및 활용
  
- ‘Accessible Arts’의 세부 사업
  -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
  - 소책자 형식의 ‘Z-카드’를 인쇄하여 문화예술기관 및 행사장의 정보 제공
  - ‘Z-카드’의 주요 내용
    - 사업에 동참하는 기관 및 행사장의 출입구 위치, 경사 등
    -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개수, 유형 등
    -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자막 서비스
    - 점자와 대형 글자
    - ‘공통의 접근 부호(universal access symbols)’를 활용한 접근성 정보 제공



‘Z-카드’에 사용한 ‘공통의 접근 부호(universal access symbols)’

- ‘접근과 통합’ 시범사업은 향후 2년간 시행되며 그 실효성을 모니터링할 예정

<http://www.sydneymedia.com.au/new-guide-provides-easier-access-to-arts-and-events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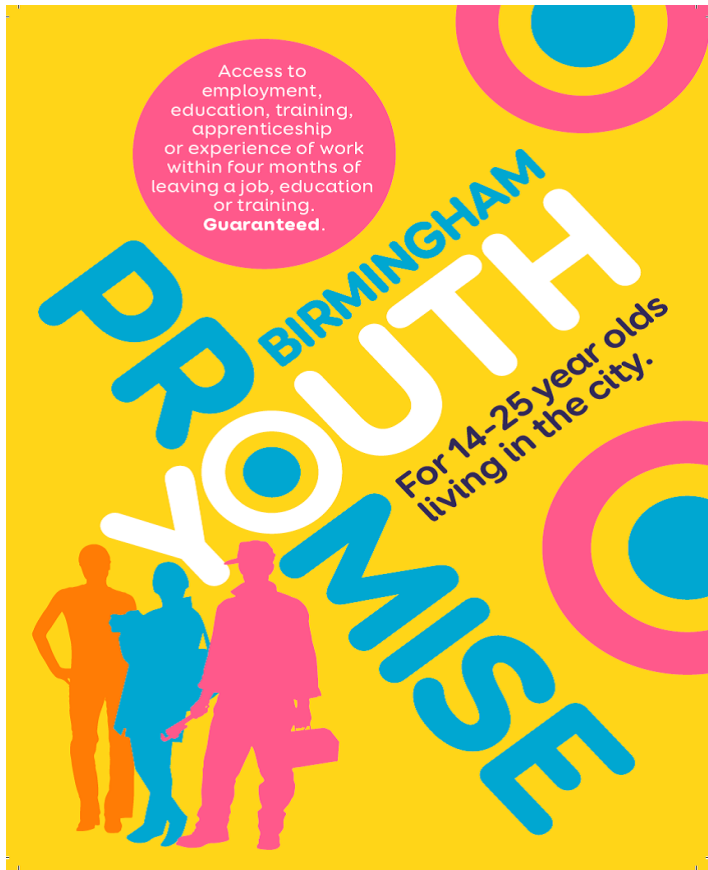
[http://www.cityofsydney.nsw.gov.au/\\_\\_data/assets/pdf\\_file/0007/244789/151019\\_CCC\\_ITEM04.pdf](http://www.cityofsydney.nsw.gov.au/__data/assets/pdf_file/0007/244789/151019_CCC_ITEM04.pdf)

# 사회·복지

## ‘취업난 해결’ 청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

영국 버밍엄市 / 사회·복지

- 영국 버밍엄市는 시의 14세에서 25세까지의 청(소)년의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취업 관련 정보 제공, 취업기회 제공,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‘유스 프로미스(Youth Promise)’ 프로젝트를 진행
  - 버밍엄시는 시민의 39%가 25세 이하로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이나 청년취업률은 영국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함.



‘버밍엄 유스 프로미스(Birmingham Youth Promise)’ 로고

- ‘유스 프로미스’의 지원방안
  - 버밍엄 취업지원 서비스(Birmingham Careers Service) 프로그램
    - 직업선택 및 진로상담
    -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
    - 재정문제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
    - 효율적인 시간관리 방법 교육
  - 유스 프로미스 센터(Youth Promise Centre)
    - 교육·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고용상태도 아닌 이른바 니트(NEET: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)족의 양적·질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
  - 취약계층의 청년과 범죄경력이 있는 청년도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
  -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운영
    - 이력서 작성부터 취업지원 정보까지 다양한 지원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
  - 고용창출기금(Targeted Employment Fund) 지원
    - 취업률이 아주 낮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우선 대상임.
  - 대중교통비의 지원 및 할인 혜택 제공
- 버밍엄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‘청년지원전략 비상대책기금(The Youth Strategy Contingency Fund)’으로부터 1백만 파운드(18억 원)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 받음.

<http://www.birmingham.gov.uk/cs/Satellite?c=Page&childpagename=SystemAdmin%2FCFPageLayout&cid=1223336017773&packedargs=website%3D4&pagename=BCC%2FCommon%2FWrapper%2FCFWrapper>

<http://www.birminghamcareersservice.co.uk/>

<http://birminghamnewsroom.com/birminghams-youth-promise-to-address-unemployment-issues/>

## 행재정·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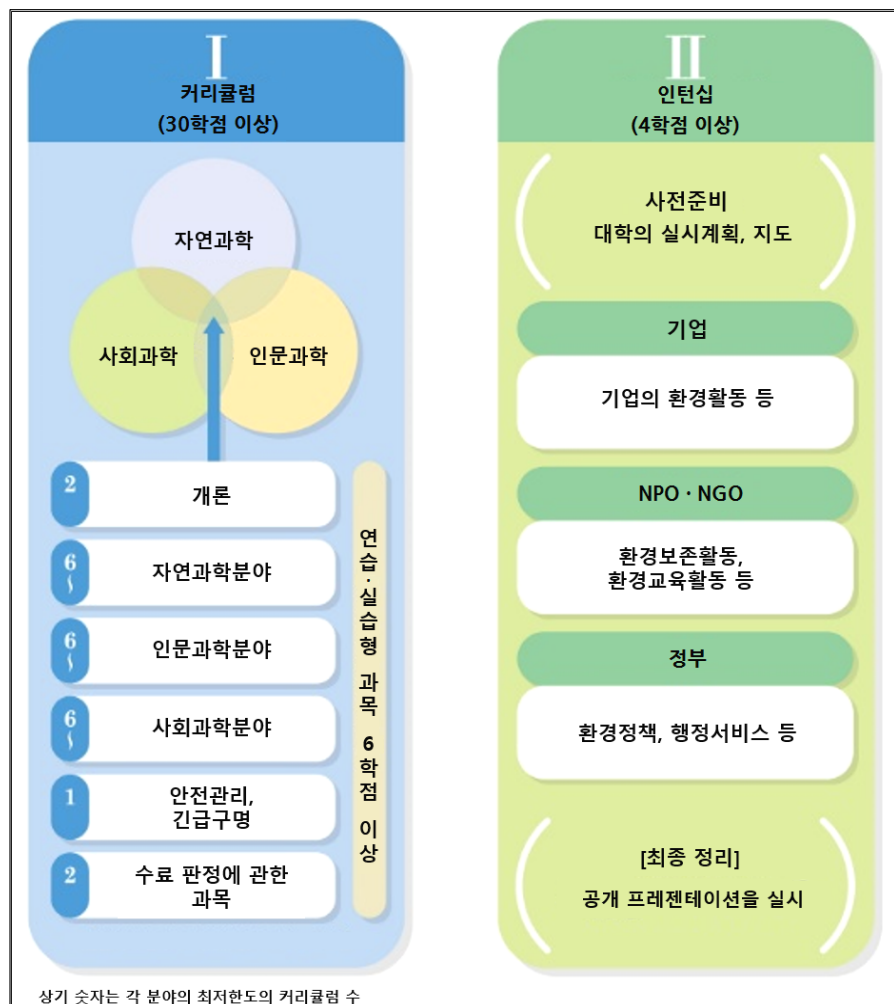
### 대학·기업 등과 연계 자연환경 분야 인재 양성

일본 도쿄都 / 행재정·교육

- 일본 도쿄都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해 ‘ECO-TOP 프로그램(Ecological Conservation-Training Of Personnel Program)’을 2007년부터 시행
  - ECO-TOP 프로그램은 자연환경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도쿄도가 대학, 기업, NPO 등과 공동으로 시행
- 프로그램의 인증 및 구성
  - 대학교에서 신청한 자연환경 교육과정이 ECO-TOP 프로그램으로 적합한지를 ‘인정 심사회’에서 심사 후 도쿄 도지사가 인증
  - 인증요건은 교과과정 30학점 이상, 인턴십 4학점 이상을 수료해야 함.
  - 교과과정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인문·사회·자연과학 분야가 각각 6학점 이상, 연습·실습형 과목이 6학점 이내로 구성
  - 인턴십은 기업, NPO, 정부 부문에서 모두 실시해야 함.
- 인턴십의 주요 내용
  - 인턴십 과정은 각 단체의 환경 활동에 관한 이념, 수법, 방침 등을 배우고 대응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주목적임.
    - 기업 : 환경관리와 자연보호 활동 등의 현장체험
    - NPO·NGO : 환경보전 관련 다자간 합의 등의 현장체험
    - 정부 : 지자체의 전반적인 환경상황 파악 및 현장체험 등
- 기타사항
  - 도쿄도는 프로그램의 수료자를 등록하고 이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
  - 대학은 학교의 ECO-TOP 프로그램이 ‘인정 심사회’와 ‘도쿄도’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객관성 확보



-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수도대학 도쿄(首都大学東京)를 필두로 총 7개 대학이 인증됨.



ECO-TOP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구성도

<http://www.eco-top.jp/>

<https://www.keidanren.net/kncf/activityreport/detail/84.html>

[http://www.eco-top.jp/download/files/eco-top\\_pamphlet.pdf](http://www.eco-top.jp/download/files/eco-top_pamphlet.pdf)

<http://www.ues.tmu.ac.jp/tourism/ecotop.html>

[http://eco-pro.com/eco2013/exhibitor\\_archive/000080.html](http://eco-pro.com/eco2013/exhibitor_archive/000080.html)

[http://www.eco-top.jp/download/files/kijyun\\_h2405.pdf](http://www.eco-top.jp/download/files/kijyun_h2405.pdf)

# 환경·안전

## 도시정부 차원 ‘시민 정신건강 증진 로드맵’ 발표

미국 뉴욕시 / 환경·안전

- 미국 뉴욕시는 뉴욕시 성인의 41%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시 차원에서 완화시키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로드맵을 발표
  
- 로드맵의 6가지 원칙과 주요 추진계획
  - 문화 바꾸기(Change the Culture) : 정신건강 증진의 이슈화
    - 25만 명의 뉴요커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
    - 공공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 진행
  
  - 신속한 대응(Act Early) : 시민의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툴(tool) 제공 및 초기 예방을 위한 기회 확대
    -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학습(social-emotional learning)과정 확대
    - 모든 학교에서 정신건강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
  
  - 치료의 격차 해소(Close Treatment Gaps) : 지역사회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접근권 제공
    - 임신 중, 출산 후 우울증 관리에 보건국·병원·NGO가 협력하여 지원
  
  -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(Partner with Communities)
    - 약 400명의 의사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정신건강 봉사단을 결성하여 연간 40만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
    - 지역사회 단체를 위한 가상교육 웹사이트 개설
  
  - 데이터의 활용(Use Data Better) :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
    - ‘정신건강 혁신 연구실’을 신설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로드

## 맵의 구현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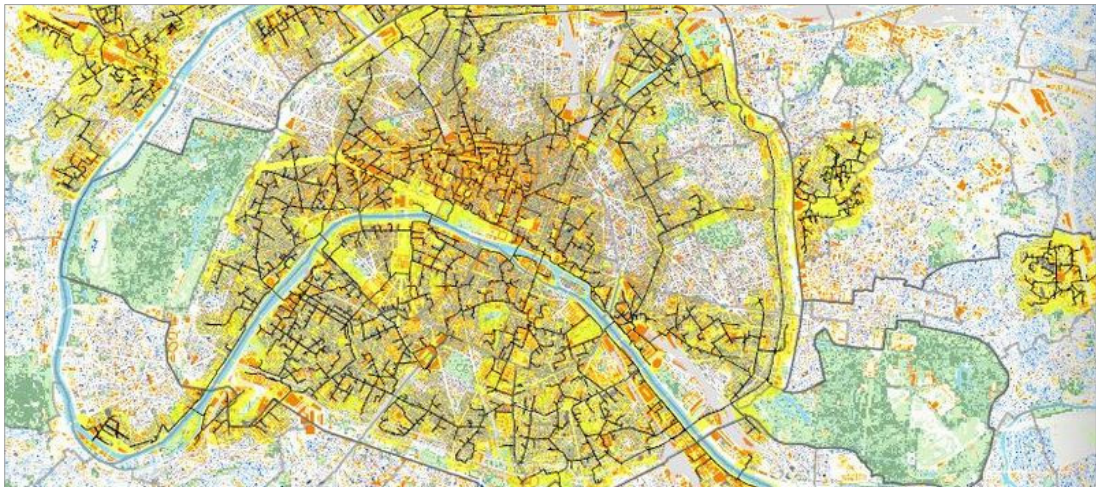
- 정부능력의 강화(Strengthen Government's Ability to Lead)
  - 취약계층의 주택지원(Supportive Housing)을 위해 아파트 15,000채를 향후 15년간 건설
  - 정신건강위원회의 조직
- 뉴욕시는 이 사업을 위해 4년간 8억 5천만 달러(9천억 원)를 투자할 예정

<https://thrivenyc.cityofnewyork.us/wp-content/uploads/2015/11/MentalHealthRoadmap.pdf>

## 파리-수도권 기후·대기·에너지 정보 담은 지도 공개

프랑스 파리市 / 환경·안전

- 프랑스 파리로도시계획연구원(Atelier parisien d'urbanisme)은 2015년 12월 '파리 2050' 지도를 공개
- 개요
  - PDF 형식과 인터랙티브(Interactive) 형식으로 공개된 '파리 2050' 지도는 파리市와 수도권 기후·대기·에너지 등의 정보를 수록
  - PDF 지도는 파리시와 수도권의 에너지 자원에 관한 정보 등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공
  - 인터랙티브 지도는 구역별 확대를 통해 기후·대기·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 지표들을 한 장의 지도에 중첩해서 제공



파리시와 수도권의 기후·대기·에너지 등의 정보가 수록된 '파리 2050' 지도

- '파리 2050' 지도의 활용
  - 향후 에너지 사용방식의 변경과 그에 따른 혁신 가능성의 도모가 가능
    - 구역별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을 알려줘서 도시 내에서 구역마다 에너지 사용량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나,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안 제시가 가능

- 도시 내 순환경제를 자극하는 경제모델을 기후정보와 결합하여 제공
- 앞으로 파리시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 해법의 모색이 가능
  - 건물들 간의 온수와 난방 에너지 교환 네트워크 구축
  - 도로와 골목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제공
  - 깨끗한 하천과 오염된 하천 사이의 순환체계 개선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tout-comprendre-du-climat-parisien-avec-la-journee-porte-ouverte-de-l-atelier-parisien-d-urbanisme-3171>

<http://www.apur.org/etude/un-plan-local-energie-metropole-paris>

<http://apur.maps.arcgis.com/>